

의료, 생명을 담다

성경의 눈으로 본 침단의학과 의료

박준현 (인제대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다니고, 기독교 의료인이신 아버지(박재형 교수)와 작은아버지(박상은 원장)의 영향을 받았으며, 기독교 대학인 고신대에서 의학을 공부했지만, 성경적인 세계관에 입각해 의학을 공부하고 의료를 수행하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또한 신앙과 의학 사이의 간극에 점점 멀어져 가고, 효율이란 명목 하에 이를 좁히려는 노력을 피하는 나를 발견하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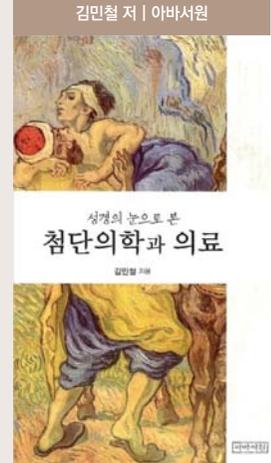
프랜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는 말하기를 역사에 대한 평가는 궁극적으로 그 시대가 생명을 어떻게 취급했는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어찌 그것이 한 시대에 대한 평가뿐이겠는가. 의료인의 삶 또한 그의 다른 업적이 무엇인데 그가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취급했는가로 판단되어야 마땅하다. 서평 의뢰를 받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책을 읽어가면서, 생명에 대한 나의 고민이 너무도 알고도 원칙이 없었음에 적잖이 당황하게 되었다.



현실: 더 이상 가치 중립적이지 않은 의료

...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누가복음 18:8)

신자유주의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자본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의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의료인 중 몇이나 될까. 저자는 생명공학도, 의료도 자본과 결합하여 더 이상 가치 중립적일 수 없다고 힘주어 말한다. 신앙을 가진 의료인이 진정 신앙에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하기엔 너무도 힘든 환경이다. 진료하고 연구를 할 때 힘을 다해 깨어있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너무도 쉽게 자본의 이익에 충실한 걸음을 걷게 된다. 그러나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보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우리의 탐욕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 탐욕이 자라갈수록 우리의 윤리의식은 점점 질식해 간다. 만연한 상업성 속에서 우리는 저자의 표현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할 기로에 놓여 있는지도 모른다. 인간의 필요, 요구라면 무엇이든지 연구하고 시행해 주는 인본주의자들의 종교가 되어가는 침단 의학. 이 책은 그러한 풍조에 발맞추어 살지 않기로 뜻을 정하게 하는 독립선언문과 같은 책이다.



해답: 각론이 아닌 원론으로부터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이사야 26:3)

본말이 전도된 본질과 수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각론이 아니라 원론에서 출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생명의 기원, 생명의 시작, 생명의 질, 그리고 생명의 종말. 이 네가지 영역에 대한 확고한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을 찾는 기본 원리가 된다. 절대진리,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의 과정을 인정해야 이 원리들에 대한 동의가 가능하다. 이 책은 복음을 소개하는 책은 아니다. 그러나 절대진리를 가진 신앙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원리들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모든 의료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선택과 관련하여 먼저 고민한 부분들을 알려주고 앞으로 함께 고민할 점들은 무엇인지 소개한다. 진보된 기술은 인간을 전인으로 보기 보다는 기능을 하는 부속들의 집합체로 환원한다. 그러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정하게 되면 생명의 신성함에 대한 다른 어떤 근거도 필요하지 않다. 이 책은 윤리, 철학, 의학의 기원, 첨단의학 등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이처럼 많은 영역에 그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고 또 적용되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원리를 잊지 않아 스스로 창조자가 되어 생명을 지배·통치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 주신 생명을 누리는 겸허하고 마땅한 자리를 지킬 수 있다.

과제: 접점은 없는 것인가?

…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요 13:35)

이 책은 기독교적 입장에서 의료와 관련된 각자의 세계관을 돌아보게 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나의 입장을 잘 견지하는 것을 넘어서 절대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접점에 대한 숙제는 여전히 남는다. 자카리아스(Ravi Zacharias)는 절대적인 권위의 상실이 도덕성의 상실을 낳고, 이러한 도덕성의 상실이 책임감의 상실, 나아가 사랑의 상실을 낳게 된다고 보았다. 절대진리를 기억하며 도덕성을 세워가고 그에 따르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 그것이 먼저 믿은 우리의 역할일 것이다. 그러나 어쩌면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역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우리의 책임감 넘치는 사랑이 접점이 되어 절대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설득되기 시작할 수도 있다.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 그들의 도덕성이 깨어나고 그들 또한 절대진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영혼들을 향한 깊은 연민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셨던 예수님처럼, 의료를 행하는 우리들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의 수고로 자연스럽게 그분의 사랑을 전하길 소망한다. 똑같이 처방을 내리고, 똑같은 연구를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에 따라 우리의 의료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받은 사랑을 먼저 기억해야겠다.

윤리, 철학, 의학을 아우르고 있는 이 책은 쉽게 읽혀 지지도 않을 뿐더러 단숨에 읽을 수 있는 책도 아니다. 또한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던져지는 질문들은 함께 토론하고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실질적인 주제들이라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치열한 고민 속에서 우리는 원칙들을 더 견고하게 붙들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다양한 의료 상황 속에서 다시 원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만연한 상업성과 유훈론에 우리의 관점이 흔들리고 도전 받을 때 두고 두고 찾아볼 수 있는 책이다.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나침반과 같은 책이며 현재의 나의 위치와 우리의 궤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와 같은 책이다.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서 바라본 이 책은 또 다른 난쟁이들이 멀리 바라볼 수 있게, 그리고 그 난쟁이들이 또 한 사람의 거인이 될 때까지 오랫동안 거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



박준현 정신과 전문의, 의학박사이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강사로 있으며 사회정신의학 학회지 편집간사를 맡고 있다. 한국정신분석학회, 대한조현병학회 정회원, Research Trainee in Mayo Clinic Molecular Pharmacology Experimental Therapeutics이다.